

특수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학습동기유발 웹 코스웨어

전문경 · 강미애 · 윤선미 · °김종훈*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 †컴퓨터교육과

A Web Courseware Inducing Learning Motivation 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y

Moon-Kyoung Jeon · Mi-Ae Kang · Seon-Mi Yun · Jong-Hoon Kim
Ch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지적능력은 정상인데 해당 연령층에서 기대하는 학습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교육성취도가 정규학년 수준에 크게 미달되거나 학습 속도가 부진한 특수학습장애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과 같은 수업을 받는다. 이런 현실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당연히 장애 아동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특수학습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에 본 논문은 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특수학습장애 아동들의 흥미를 길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의 개발로 특수학습장애 아동들의 주의 집중 능력과 성취동기를 길러 주고, 흥미를 키워주므로 학습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다.

1. 서론

오늘날 학교의 수업에서나, 가정에서 과잉행동을 하는 아동들이 많다. 이런 과잉행동은 주의집중결함으로 이어진다. 아동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한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며, 참용성이 없고 마음이 쉽게 변한다. 가정에서는 안절부절못하고 시끄러우며 불복종적이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다 끝내는 경우가 드물고 어릿광대처럼 익살을 부리고 교실에서 떠드는 등의 행동을 나타낸다.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아동을 특수학습장애 아동이라 한다. 아동의 이런 행동들은 많은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습장애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으로 지정된 후 학령기 자녀의 부모와 교사, 학습장애 관련 전문가들은 학습장애아 치료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으나, 학습장애, 학습부진, 학습지진과의 학습장애 발생요인에 관한 심리과정 결합접근군과 교육적 접근군간의 이견, 교육진단, 판별방법, 검사도구, 교육적 처치 등에서 각 전문분야별 학습장애아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전문가들의 편협성으로 인해 신경성리, 정보처리, 발달적, 학업적, 행동 분석적 접근법들이 통합된 다요인적 종합적 접근으로 학습장애아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1]. 아직까지는 특수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들은 융통성 있게 각 장애아의 교육요구에 맞도록 고려되어서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특수학습장애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특히 학습흥미 및 의욕상실, 성취동기 부족 등으로 인해 특수학습 장애가 나타나는 아동을 위한 학습 동기 유발 프로그램이다. 이의 개발로 특수학습장애 아동들의 주의 집중 능력과 성취동기를 길러 주고, 흥미를 키워주므로 학습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연구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3장에서 코스웨어의 구성도와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은 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특수학습장애 아동이 잃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논문의 배경이 되는 동기 이론과 특수학습장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2.1 동기이론

학습자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동기에 의한 것이다. 동기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방향과 강도 등을 좌우하는 정신적인 힘이나 그러한 경향'을 말한다. 동기란 말은 라틴어의 "movers"에서 나온 것으로서 "움직인다." (move)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동기란 유기체의 움직임을 가져오게 하는 과정인 것이며, 이 움직임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뚜렷한 방향이 있는 것이다. 동기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행동이란 보이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감정, 공포, 분노 등의 정서적 상태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 교육에 있어서의 그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들에게 지식과 기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습 동기는 성취 동기의 일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취동기란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의욕, 성취하려는 동기로 학습동기는 학습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를 일으키는 것을 '동기유발'이라 한다. 즉, 학습자가 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도록 하고 유목적적, 적극적인 학습을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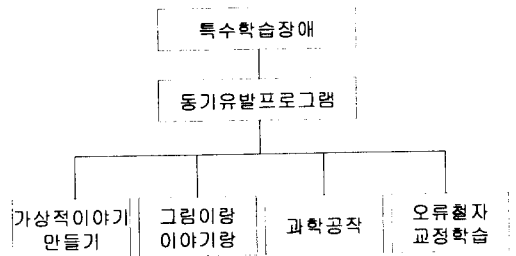
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동기유발의 원리는 이미 경험한 내용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 등과 결부시키도록 하고 지각적으로 학습 목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기 유발의 방법으로는 내생적 동기 유발과 외생적 동기유발이 있다. 내생적 동기 유발은 과제 자체에 흥미를 갖도록 환기하여 스스로가 재미있어 학습 활동을 하려는 의욕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외생적 동기 유발은 칭찬이나 벌 등을 제공,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등의 행위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외생적 동기 유발의 방법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내생적 동기 유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예를 들어 과제를 수행하면 칭찬이나 상을 준다면 그것을 원하여 그 과제를 수행해 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칭찬이나 상이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외생적 동기와 더불어 내생적 동기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생적 동기 유발의 경우에는 다르다. 한번 과제에 흥미를 갖게 되면 그 과제를 수행해 내려는 의욕이 생겨 이후에도 스스로 학습하려 할 것이다. 내생적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아동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제한을 받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기분이 나빠지거나 하면 불안정해져 모든 일들에 싫증을 느끼기 쉽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되도록 실패는 적게 하고 성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실패를 자주 겪게 되면 좌절감이 생겨서 앞으로 학습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되면 왕성한 호기심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학습 활동들은 이러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감각적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적 및 청각적 효과를 이용하고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역설, 불완전성, 단순화 등을 학습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3, 4].

2.2 특수학습장애

특수학습장애란 지적능력은 정상인데 해당 연령층에서 기대하는 학습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교육성취도가 정규학년 수준에 크게 미달되거나 학습 속도가 부진한 장애이다. 1963년 뉴욕 시에서 열린 부모들의 모임에서 커크(Samuel Kirk)가 제안함으로써 시작된 용어이다. 지능은 보통이거나 우수하지만 학습에 중요한 특정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언어의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는 오른쪽 커의 청력이 왼쪽보다 낮을 때 주로 일어나고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 또 어떤 때는 말이 뒤엉킬 때도 있다. 집중력의 장애는 몇몇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꼭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한곳에 차분히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학습이 곤란해지며,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에 장애를 받아서 생긴다. 특히 읽기 장애 즉, 난독증이 흔하며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흔하다. 말이 늦은 아동이 학습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 정신지체, 시각, 청각 등의 감각장애, 교육적, 문화적, 환경적 비혜택, 심한 정서장애로 인해 특수학습장애 아동들은 학습장애 집단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특수학습장애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뇌 산소의 결핍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나타나는 지적능력 결핍, 정서 불안에 의한 반발행동, 동기 결핍 등의 일반적 학습 부진의 요인이 있다. 또한 교재의 부적당으로 인한 학습의 곤란, 우수학생 중심으로 지도하여 학습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성취동기의 부족, 부진학생 구제를 위한 교사의 인내심 부족 등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부진요인이 있다. 지적요인으로 지능이 높다 할지

라도 그 지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학습흥미 및 의욕상실, 정서장애, 장기결석 또는 출석의 불규칙에 오는 학습 부진 등 학생 자신이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교육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이 학습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으나 학생 자신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진의 원인이 된다. 이런 특수학습장애 아동의 행동 특성은 다양하다. 과다행동, 과소행동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주의 집중력이 짧고 산만하고 고립현상이 나타난다. 기억하거나 사고하는데 장애가 있다. 읽기, 쓰기, 산수, 철자법 등의 특정학습의 장애가 나타나며 언어와 청각 장애가 있다. 특정학습장애 측정은 단순한 판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에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검사인 표준학업 성취검사와 아동의 학업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되는 심리적 처리 과정의 평가를 하는 것인 프로세스 테스트와 교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검사인 비공식적 독서측정검사(IRI)와 준거, 참조검사와 매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행동적 평가 등의 특수학습장애 측정 방법이 있다. 특수학습장애 유형으로는 청지각 진행장애, 실독증, 주의장애[5]등이 있다[6, 7]. 특수장애는 종류는 다양하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이전에는 현재의 특수교육대상 장애 중 학습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되고 장애 아동의 수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다.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특수학습장애 아동이리는데 다른 특수장애 아동에 비해 거부 반응이 없다. 학교에서 특수학습장애 아동이라 해도 다른 일반 아동들과 같은 수업을 받는다. 이런 현실은 교사의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특수학습장애 아동들은 일반 수업을 듣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한 즉, 학습의 흥미를 잃을 특수학습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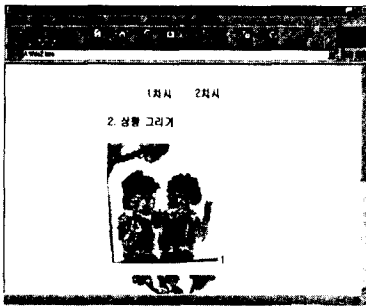
3. 프로그램



<그림 1> 구성도

본 연구는 특수학습장애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특히 학습흥미 및 의욕상실, 성취동기 부족 등으로 인해 특수학습 장애가 나타나는 아동을 위한 학습 동기 유발 프로그램이다. 특수학습장애 아동이 잃은 학습에 대한 의욕을 높이를 통한 학습에서 되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특수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들은 너무 엄격하고 강직하면 안 되고 융통성 있게 각 장애아의 교육요구에 맞도록 고려되어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특수학습장애 아동의 학습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본 코스웨어의 전반적인 구성은 <그림 1>과 같으며 각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상적 이야기 만들기** 이 프로그램은 '말 이어가기'의 종류로서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의 한 문장을 제시하면 학습의 아동들이 조 또는 반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앞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효과로는 우선 아이들이 모두 다 한번씩은 말을 해야하기 때문에 앞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첫 문장을 제시할 때 교사가 너무 상투적인 내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상투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아동들 역시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2> 그림이랑 이야기랑

• **그림이랑 이야기랑** 이 프로그램은 아동이 책을 읽으면 머리에서는 그 내용을 상상하고 책을 읽은 후 상상한 내용을 그리도록 하고 다시 책의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럼으로써 특수학습장애 아동의 쓰기·말하기·사고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글에 대한 주의를 지속시키고, 글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만든 상상을 사용한다. 집과 학교에서 모두 가능하다. 집에서 엄마는 아이가 책을 읽도록 지도한다. 책을 읽은 후 읽는 동안 상상했던 이야기를 그리도록 지도한다. 엄마는 아이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내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먼저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제1그룹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때, 제2그룹의 아이들은 그 이야기의 내용을 모르게 한다. 제1그룹의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그림을 제2그룹의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제2그룹의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고 발표를 한다. 한 차례 끝나면 그룹간의 역할을 바꾼다 <그림 2>. 읽는 동안 상상하게 하고, 책의 이야기와는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고능력과 쓰기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감과 말하기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본 코스웨어에서는 직접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상되는 그림을 그려 스캐닝을 하였다

• **과학 공작** 이 프로그램은 놀이치료를 통해 특수학습장애 아동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성취동기를 길러 줄 수 있다. 여기서는 집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활용하여 제작 과정을 제시하여 혼자 과학공작을 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제작한 과학

공작 작품을 가지고 놀이함으로써 작품 속의 과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과학공작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직접 손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인해 배울 수 있고, 직접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동들의 성취동기를 길러 줄 수 있다.

• **오류철자 교정학습** 이 프로그램은 위의 프로그램과 달리 교사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아동 스스로가 주도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특수장애학습 아동의 언어장애 중 오류철자 교정을 통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린이 중 능력별로 안배하여 3인 1조와 2인 1조로 나누어 소집단 활동조를 편성하고 오류문자 교정학습시 1차는 개인이, 2차는 조별로 모여 서로 비교 교정하고, 3차는 교사와 최종 교정하고 유사단말을 찾아 후속학습으로 활용하고 오류문자는 재학습하는 과정으로 지도한다. 어린이들이 학습활동시 지시 받는 피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평가받는 입장이 아닌 틀린 철자를 고치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학습하여 쓰기 능력 향상과 동시에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8].

4. 결론

이상에서 특수학습장애 아동의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흥미 유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특수학습장애 아동은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주의에는 특수학습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많다. 단지 그 아동들의 학업성취만을 놓고 평가하여 장애아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아동들이 왜 학습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특수학습장애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특히 학습흥미 및 의욕상실, 성취동기 부족 등으로 인해 특수학습 장애가 나타나는 아동들을 위한 학습 동기 유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학습장애의 요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어갈수록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학습장애 아동들을 각 장애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교육요구나 여건에 맞는 융통성있는 개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단순히 특수학습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그러한 아동들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그러한 아동들의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특수학습장애 아동은 학습에 대한 의욕·흥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성취동기·자신감을 키울 수 되고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특수학습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http://www-2.kyungpook.ac.kr/~edclinic/edudata/data05.htm>
- [2] 윤운성, 학습과 동기전략, 문음사, 1995.
- [3] 유기섭, 교육심리학, 동문사, 1993.
- [4] 나동진, 교육심리학, 학지사, 1999.
- [5] <http://user.chollian.net/~comdisr/학습장애.htm>
- [6] 김홍주, 신간 특수교육학 개론, 교육출판사, 1994.
- [7] 송준만, 유효순, 특수 아동 교육, 교문사, 1990.
- [8] <http://kisc.or.kr/data/data2/data2-2/study/95special/html/special130.html>